

碩士學位論文

南·北韓 임꺽정의 扮裝에 관한 比較

2003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鍾 瑞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昌九

# 南·北韓 임꺽정의 扮裝에 관한 比較

The comparison of Make-up of Lim, Kkeong Jeong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鍾 瑞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昌九

# 南·北韓 임꺽정의 扮裝에 관한 比較

The comparison of Make-up of Lim, Kkeong Jeong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鍾 瑞

李鍾瑞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12月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 초 록

남·북한은 분단 50여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가 지속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대립 및 이질화가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민족의 필연적 과제인 민족 재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누적된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영상물에 대한 비교를 목적으로 남·북한 영상물 중 남한의 공중파에서 방송되었던 남·북한 임꺽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소설 임꺽정을 참조 하였으며 영상물 임꺽정의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 [의형제]편까지 본 논문의 범위를 잡았다.

남한의 임꺽정은 원작 소설의 진행순서에 따라 제작이 되었으나, 북한의 임꺽정은 의형제 편부터 제작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한 영상물 중 방송에 대한 개념 차이를 살펴보고, 소설 임꺽정을 통해 등장 인물들의 내적, 외적인 면들을 연구 하고, 영상 물 속의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성격, 신분, 환경등에 의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분장디자인과 분장의 테크닉 등을 연구하였다.

남한의 분장에 대한 정의는 배우를 극본이 요구하는 인물화 하기위해 시대, 연령,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외적 시각적 표현 수단 이다.

북한에서의 분장에 대한 정의는 ‘배우가 창조하는 인물의 모습을 조형적으로 살려내는 성격창조의 예술이다’ 라고 김정일의 교시에 의해 명시 되어 있다.

앞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한 임꺽정의 등장 인물에 대한 외형적 이미지와 분장디자인, 분장 테크닉 등을 비교연구 한 결과, 남한의 임꺽정에서는 일반적인 분장의 개념에 충실히 하여, 미학적인 측면과 극중 배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와 고증 자료들을 연구하여 분장디자인과, 분장 시술을 한다.

한 예로 거친 수염 분장을 할 때에는 인조 사, 생사 등을 사용하여 직접 붙이기를 하였고 상처 분장등에는 외국의 분장 재료들이 다양하게 사용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표현방법, 여러 종류의 재료가 극중 배역을 살리는데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 배역의 삶 과 처한 상황 등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 하게 되었다.

북한의 임꺽정에서는 김정일의 분장에 대한 교시에 따라서 배우를 등장인물화 하고, 등장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외형적 표현방식이나 사과의 차이가 다르게 표현되며 특히 양반,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갖은 평민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보는 부분들이 등장 인물들의 분장에서 시각적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이유는 원작의 내용이 임꺽정을 비롯한 천민계급(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귀족계급(부르조아 계급)을 타파한다는 계급 투쟁 이념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착안 하여 이른바 (압박이 있는 곳에 반드시 반란이 있게 된다는 투쟁의 진리)를 묘사 했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영화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평민과 천민 계급들에 대해서는 사실적이며 지배계층에 의해 지배 당하는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의 사상과 이념의 차이 때문에 사회적인 계층의 분류에 따라 가시적으로 들어 나는 극중배역의 외형적 특징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영상 물에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에 의해 종속되고 당의 유일 관리제 원칙에 따라 영상 물 제작이 이루어 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문화교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남·북 통일 시 야기될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분야 가 아닌 촬영, 조명, 분장 등 영상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거나 또는 예술적 표현방법을 상호 교류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선결 되어야 할 것 이다.

# 目次

## 초 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II. 남·북한 임꺽정의 등장인물에 관한 전반적 이해	4
1. 남·북한방송의 개념차이	4
1) 남한의 방송에 대한 개념	6
2) 북한의 방송에 대한 개념	10
2. 남·북한 임꺽정의 등장인물 연구	26
1) 임꺽정 (남한-정홍채, 북한-최창수)	26
2) 이장곤 (남한-김병세)	28
3) 양주팔 (남한-이정길)	28
4) 봉학이 (남한-차광수, 북한-량해승)	29
5) 박유복 (남한-정규수, 북한-리용운)	30
6) 곽오주 (남한-문영미, 북한-신명옥)	31
7) 길막봉 (남한-손오균, 북한-최봉식)	32

8) 황천왕동 (남한-김홍표, 북한-리학철) .....	33
9) 배돌석 (남한-이기영, 북한-고종환) .....	34
Ⅲ. 남·북한 분장비교 .....	36
1) 임궏정 .....	36
2) 이봉학 .....	41
3) 박유복 .....	44
4) 곽오주 .....	46
5) 길막봉 .....	47
6) 황천왕동 .....	48
7) 배돌석 .....	51
8) 그 외 인물들 .....	52
Ⅳ. 결론 .....	62
참고문헌 .....	65
ABSTRACT .....	71

## 사진목차

사진 1.	남한의 임꺽정 .....	36
사진 2.	북한의 임꺽정 .....	36
사진 3.	수염을 붙인 모습 .....	37
사진 4.	북한의 임꺽정 .....	37
사진 5.	눈썹을 강조하기 위해 붙임 .....	38
사진 6.	남한의 임꺽정 .....	38
사진 7.	남한의 임꺽정 .....	39
사진 8.	북한의 임꺽정 .....	39
사진 9.	북한의 임꺽정 .....	40
사진 10.	민 상투의 임꺽정 .....	40
사진 11.	양반으로 변복한 북한 임꺽정 .....	41
사진 12.	양주골 사또 .....	41
사진 13.	남한의 이봉학 .....	42
사진 14.	북한의 이봉학 .....	42
사진 15.	남한의 이봉학 .....	43
사진 16.	북한의 이봉학 .....	43
사진 17.	남한의 박유복 .....	44
사진 18.	북한의 박유복 .....	44
사진 19.	북한의 박유복 .....	45
사진 20.	북한의 박유복 .....	45
사진 21.	남한의 곽오주 .....	46
사진 22.	북한의 곽오주 .....	46
사진 23.	미친후의 남한 곽오주 .....	47
사진 24.	청석골의 북한 곽오주 .....	47
사진 25.	남한의 길막봉 .....	47

사진 26. 북한의 길막봉 .....	47
사진 27. 남한의 황천왕동 .....	49
사진 28. 북한의 황천왕동 .....	49
사진 29. 남한의 황천왕동 .....	50
사진 30. 북한의 황천왕동 .....	50
사진 31. 수염을 기른 황천왕동.....	50
사진 32. 결혼 후의 모습.....	50
사진 33. 남한의 배돌석 .....	51
사진 34. 북한의 배돌석 .....	51
사진 35. 북한의 배돌석 .....	52
사진 36. 북한의 배돌석 .....	52
사진 37. 남한의 이장곶 .....	53
사진 38. 백정사위가 된 이장곶.....	53
사진 39. 복직이된 이장곶 .....	53
사진 40. 병판에 오른 후의 이장곶 .....	53
사진 41. 남한의 양주팔 .....	54
사진 42. 백정 학자인 양주팔.....	54
사진 43. 묘향산 보현사의 양주팔.....	54
사진 44. 혜화문 갖바치 양주팔.....	54
사진 45. 양주팔과 임걱정 .....	55
사진 46. 병해대사인 양주팔 .....	55
사진 47. 남한의 임돌 .....	56
사진 48. 소 백정의 임돌.....	56
사진 49. 노인이 된 임돌.....	56
사진 50. 북한의 임돌 .....	56

사진 51. 남한의 오가 .....	57
사진 52. 북한의 오가 .....	57
사진 53. 북한의 양반 노인.....	58
사진 54. 북한의 양반 노인.....	58
사진 55. 북한의 백 이방.....	58
사진 56. 앞 옆판을 붙인 이방 .....	58
사진 57. 박해창상.....	59
사진 58. 남한 거제의 노인.....	59
사진 59. 남한의 남자 등장인물.....	59
사진 60. 북한 양주마을 사람들.....	59
사진 61. 남한의 애 기 .....	60
사진 62. 남한의 애 기 .....	60
사진 63. 북한의 운 봉 .....	60
사진 64. 북한의 섭섭이 .....	60
사진 65. 북한의 백귀련 .....	61
사진 66. 북한의 박유복처 .....	61

## 표 목차

표 1. 조선 중앙 텔레비전 프로그램 주제 .....	20
표 2. 조선 중앙 텔레비전 프로그램 형식 특징 .....	21, 2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남·북한은 분단 50여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가 지속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대립 및 이질화가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민족의 필연적 과제인 민족 재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누적된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질성을 줄여 나가는 방법들이 선행 되어 져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남·북의 대중매체에 대한 개념과 해석의 차이점 등을 비교 연구하여, 체제나 이념이 포함되지않은 예술적 표현방법을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문안하여 분장의 모든 표현방식이 사용되는 사극을 중심으로 연구 하며, 사극 중에 남과 북이 각각 제작한 작품들 중 시대적배경과 등장 인물들이 같은 임격정을 선택 하였다.

이 시기는 21세기에 막 들어온 때 이므로 남·북이 화합하여 21세기의 멀티 미디어 시대,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함께 개발, 연구하여 미래 지향적인 정보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의 영상물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성취 시 야기될 체제 이념적 갈등 과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남·북간의 영상물 비교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남북한의 영상물 중 남한의 공중파에서 방송했던 남·북한 임꺽정과 소설 임꺽정을 참조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남한은 임꺽정 분장을 담당한 분장사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북한의 분장사와는 접촉이 불가하므로 김정일의 교시내용과 시각적 방법에 의존하여 연구하는 한계가 있다.

남·북한 영상물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으므로 비디오 캡처를 사용하여 화면을 사진화 하여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임꺽정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 [의형제]편까지를 본 논문의 범위로 잡는다.

남한의 임꺽정은 원작 소설의 진행순서에 따라 제작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임꺽정은 의형제 편부터 영화화 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은 시각화 하여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의 임꺽정에서는 극중 대사에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의 등장 인물들에 대해 조금씩 내용이 설명된다.

1985년 사계절 출판사에 의해서 전9권으로 출판되어진다. 소설 임꺽정은 이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남한의 임꺽정은 1996년 SBS방송국의 창사6주년 특집을 기본으로 한다.

북한의 임꺽정은 1987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 창작단에서 제작하고 남한의 KBS에서 방영한 임꺽정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물 제작 시스템의 분석 및 등장 인물들을 비교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 남·북한의 영상물을 비교, 분석한다. 1990년대 이후 연구되거나 발표된 우리나라 방송관련 기관과 연구단체 등의 주요 보고서와 연구자료, 기타 학술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둘째, 남·북한 임꺽정의 등장인물들을 비교 연구한다. 영상물 속의 등장인물들의 성격, 신분, 사건, 환경등에 의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한다.

셋째, 등장인물들의 분장을 비교 연구한다. 소설을 영상화한 작품이므로 최대한 남·북한의 임꺽정에 동시에 등장하는 극중인물 위주로 비교 연구하며, 남과 북의 임꺽정 등장인물 중 특별한 캐릭터의 인물은 독립적으로 연구한다.

넷째, 남·북한 영상물 공동제작 및 교류시 이상적인 분장방법을 제시한다.

## Ⅱ. 남·북한 임꺽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

### 1. 남·북한 방송의 개념차이

#### (1) 남한의 방송에 대한 개념

남한의 방송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점차 스며들면서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누구에게나 알기 쉽고 구체적인 영상을 통해 매일 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오락·교육·교양적인 내용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남한 방송의 기본방향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sup>1</sup> 따라서 남한에서는 방송편성과 제작 그리고 운영에 있어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방송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의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는 공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의 방송정책의 기초는 국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방송이 국민들에게 유익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의 설립기준, 소유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송의 편성비율 기준 등을 통하여

---

<sup>1</sup> 방송법 제1조

방송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방송위원회의 심의제도 등을 통해 유해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방송으로 개인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기본바탕 속에 남한의 대북방송 정책은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 정책의 기본노선과 일치한다. 남한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통일정책은 북한사회를 체제 유지적 개방사회로,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개방사회에서 체제 개혁적 사회로 변화시켜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남·북간의 상호 신뢰성과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있다. 따라서 대북방송의 기본전략도 상호 비방적인 매체로서가 아니라 화합의 매체로서 오랜 분단에서 온 이질성을 배제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추구해 가는데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한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남·북한 방송교류를 제의해 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형태를 띤 대북 제의들은 북측의 외면과 무반응 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1990년대부터 북한 방송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표적으로 KBS의 ‘남북의 창’ MBC ‘통일전망대’ SBS의 ‘통일로 가는 길’ 등을 통해 북한의 동정 및 사회현실을 소개함으로써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등에 힘입어 2002년 하반기

---

<sup>2</sup> 문화 관광부, 통일대비 방송체제 구축, 1998.12,p.9.

인 현재에는 많은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보면 2002년 월드컵, 부산 아시안 게임 등 남과 북이 서로가 하나가 되자는 슬로건아래 남·북 단일기 탄생과 함께 서로의 화합이 되는 상황들이 방송을 통해 많이 보여졌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출범 시에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 ‘북한 라디오, 텔레비전 단계적 개방 추진’을 포함하여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국민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방송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sup>3</sup> 이러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을 국내방송사가 정규 편성하여 방송함으로써 문화적인 동질감 회복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한은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와 동질성의회복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 그리고 북한동포를 위한 방송인<KBS 사회교육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통일의지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교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유발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나라의 통일방안을 주변 동포들에게 홍보하여 실질적인 남·북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sup>4</sup>

또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남북통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방송은 1953년에 주한 외국인들에게 우리 나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영어방송인

---

<sup>3</sup> 문화 관광부, 새 정부 100대 정책과제, 1998.2.12.

<sup>4</sup> 한국방송공사, KBS 연지, 1998.

‘Voice of Korea’를 발전시킨 것이다. 현재는 KBS 라디오본부 산하 ‘국제방송국’으로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인니어, 러시아어의 10개국어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방송하고 있다.

국제방송은 출범초기에는 ‘반공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가정책을 해외에 홍보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방송의 목표도 ‘해외 청취자들에게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국제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며 나아가 국제친선과 인류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하는 방송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국제방송은 국가 홍보성격의 보도, 교양, 오락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방송프로그램 이외에 국가적, 사회적인 중요 행사 시에 또는 한국과 해당지역 국가와의 행사나 기념일 등에 특집, 기획 방송을 한다. 주요 방송내용은 국내외 뉴스, 전통문화 소개, 국가정책 홍보, 해외동포에게 조국실정 홍보, 해외 오도된 여론 및 보도의 시정 등이다.<sup>5</sup>

우선 남한의 방송 편성을 보면 각 방송사별, 채널별로 편성의 기본 방향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크게는 방송이념에 따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구분 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방송과 전국방송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성격과 위치에 따라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로제공하고 상

---

<sup>5</sup> 신동국, 남북방송교육협력방안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p.44

업방송은 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그리고 전국 방송은 종합적인 내용을 편성하고 지역방송은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강조하는 편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북한과 같이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방송 복리증진의 측면에서 정부가 권장하고 국민들이 이를 요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방송 편성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방송법상에 방송편성의 자유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내용과 형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방송법 제4조에는 “누구든지 방송의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sup>6</sup>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방송은 방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의기준 등의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규제만을 제외하고 형식과 내용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남한의 방송편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남한의 방송편성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봄철과 가을철에 두 번 정기적으로 개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을 한다.

둘째로 남한의 방송편성은 방송시간, 방송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배열을 합리적으로 짜는 것을 중요시한다.

셋째로 방송편성의 가장 큰 결정요인이 시청자들의 반응이다.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개편된다. 이는 시청률이 편성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sup>6</sup> 방송법, 제3조2항.

남한의 방송은 KBS-1 TV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방송을 실시하고, 아울러 다른 방송사와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방송사는 시청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편성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EBS를 제외한 방송3사가 종합편성을 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남한의 텔레비전 방송 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시간대에 따라 유사한 편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시간대는 아침시간대, 오전시간대, 오후시간대, 주요시청시간대, 심야시간대로 분류한다.

우선 아침시간대의 수용자들의 분주한 일상을 감안하여 무겁지 않은 짧은 뉴스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편성을 한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주로 뉴스, 모닝쇼,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오전시간대는 주로 가정 내에 남아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가볍고 부담 없는 정보와 오락을 담은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오후시간대에는 17:00~19:00시와 19:00~20:00시의 두 구역으로 나뉜다.

우선 17:00~19:00까지는 주로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대이다. 따라서 뉴스와 어린이 만화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한다. 그리고 19:00~20:00까지는 본격적인 주요 시청시간대로 진입하는 시간으로 시청자를 붙잡기 위하여 주로 뉴스와 시트콤, 버라이어티 쇼 등을 편성한다. 주요시청 시간대는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로 주로 드라마와 메인 뉴스를 편성한다. 그리고 심야 시간대는 시청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않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편성하나 최근에는 생활시간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시간대에는 주로 뉴스, 토크

쇼 등의 다양한 내용을 편성하고 있다.<sup>7</sup>

위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영상물 들에서는 다양하게 정보 제공과 함께 교육, 오락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2) 북한의 방송에 대한개념

북한방송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언론철학과 70년대 이후 주체사상에 의해 규정되면서 사회주의 혁명수행의 매체로 규정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언론관에 입각한 북한방송은 선전 선동자.조직자.문화 교양자의 세가지 범주에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내 방송정책의 기본방향은 북한의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대내 방송정책은 북한주민을 사회주의적인 인간형으로 개조시켜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서 자발적 동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방송은 다음 세 가지 기본원칙에 의해 운영된다.<sup>8</sup>

첫째로 방송은 혁명적 당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선전의 도구이며 대중을 교양하기 위한 예리한 사상적 무기여야 하고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한 당파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둘째로 방송은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당정책을 인민 대중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이바지해야 한다.

셋째로 방송은 객관적 현실을 가장 과학적이고도 진실하게 반영해야

---

<sup>7</sup> 방송위원회, 97방송편성정책 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1997.12, pp.213-217.

<sup>8</sup> 강현두, 북한매스미디어론, 1998, pp.150-153.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방송망을 통해 집단청취나 집단시청을 실시한 후 조직적인 선전 선동원에 의한 내용해설이나 변론, 집단토론 지도 등의 사상교양을 하는 특이한 정책을 취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방송 목표로 인해 북한방송의 방송원들은 당 사업 전선의 전초전에 서서 당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한다는 목표 아래 혁명수행의 사명감을 인민대중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방송화술을 구사하고 있다.<sup>9</sup>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배경으로 북한의 대남 방송정책은 북한 헌법과 당 규약에 명시한 대남 혁명 달성을 위해 방송을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대외 방송정책까지도 대남 방송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 방송의 기본목적을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국제혁명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어문별 대외 방송체계를 갖추어 국제사회 친 북적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외방송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남한 국민의 반정부 투쟁소식 및 선동, 남한 실정의 왜곡보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비판 등 국제사회에서 남한의 인식을 오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송정책을 취해

---

<sup>9</sup> 이정춘·전석호,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 (서울:청림출판, 1991). pp.206-210

왔다.

이상의 남·북 방송정책을 비교해보면, 남한에서는 방송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장 시키는데 기여하는 매체로 간주하는데 비해 북한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혁명의 도구로 간주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남북한의 대내 방송정책, 그리고 대남 또는 대북 방송정책의 성격으로 이어진다.<sup>10</sup>

남한의 대내방송의 기조는 국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매체로 역할을 하는데 있다. 따라서 방송의 자율성과 공적책임을 강조하며 방송이 민주적인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대내 방송정책은 북한 주민을 사회주의 형의 인간으로 개조 시켜 북한체제 유지와 건설에 기여하게 하는 선전선동의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은 사회주의 이념과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교육적인 도구이며 선전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북, 대남 방송정책도 대내 방송정책 만큼이나 상이하다. 남한의 대북 방송정책의 기조는 폐쇄적인 북한체제를 개방사회로 이끌어 내어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민족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인 남한의 적화를 위해 남한 국민들의 반정부, 반미감정을 유발시키는 선전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남·북한의 건전한 방송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 하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

<sup>10</sup> 문화 관광부, 통일대비 방송체제 구축, 1999.1,p.15.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방송교류가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북한방송은 편성에 있어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방송의 형식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방송이론은 방송의 형식적 특질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송 형식이란 실무적 문제나 방법이 아닌 일정한 사상의 반영이며, 철저히 일정한 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우리 식의 방송형식’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 식의 방송형식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간행물에 따르면 ‘방송편집에서 음악을 비롯한 문예 물을 많이 내보내며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생활을 여러모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방송편집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sup>11</sup> 따라서 근로인민 대중의 다양한 생활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형식을 띠고, 아울러 인민대중의 사상과 정서적 요구와 취미, 시대적 감정에 맞는 고상하면서도 통속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에 기초하여 우리식의 방송형식 만들기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첫째, 방송편성에 있어서 전체 방송시간 중 보도를 제외한 그 밖의 방송시간에는 음악, 무용을 비롯한 문예 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음악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음악은 호소력이 높고 감화력이 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문화 정서적으로 교양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혁명적인 시대분위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문예 물이 아닌 다른 일반프로그램에서도 그 프로그램의 특성

---

<sup>11</sup> 문화관광 부, 앞의 책, p.73.

을 잘 살릴 수 있게 특성에 맞게 잘 편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꼽는다. 즉 참관기나 좌담회같이 재미가 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대중들의 기호에 맞게 잘 편집해야 하며,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라도 편집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지루해 하거나 반복 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널에 있어서는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편집과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잘된 편성과 편집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진 편집 물을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 배열하되, 이것이 김일성 부자의 위대성 선전이나 당정책 의도에 잘 부합하는 편성 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에서의 편성전략은 얼마나 많은 수용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면 북한에서의 편성전략은 방송선전의 목적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시기와 정황에 맞게 편집내용과 형식, 편성 방법을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편집과 편성과정에서 계획을 짤 때부터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므로 북한의 편성과정은 당에 의해 종속되고 당의 유일관리제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방송을 그 임무와 대상, 포괄적인 범위수단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편성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방송 체계는 크게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는 무선방송과 유선방송으로 나눌 수 있다. 임무와 대상에 따라서는 북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방송,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방송,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

로 하는 대외방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방송은 대상으로 하는 청취자와 선전목표가 다르므로 각 방송별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sup>12</sup>

방송별 특성을 살리는 것은 방송선전의 실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방송리론>에서는 각 방송의 구체적인 방송형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의 경우, 김일성 부자나 당에 대한 송가를 비롯하여 유일 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노래를 75%이상 내보내야 한다거나, 정책가요는 5% 이하로 내보내야 하고 경제 선동을 하는 경우에도 정책가요를 기본으로 하지 말고 수령님과 당에 대한 노래를 기본으로 내보내야 한다든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제시하고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과는 달리 제3방송(유선방송)은 당 정책 선전을 위주로 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노래도 정책가요를 기본으로 내보내야 하고 조선 중앙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내보내지 않는 모내기과 김매기에 대한 노래 같은 것은 제3방송을 통해 내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TV방송에 있어서는 북한 텔레비전 방송의 일반적인 편성 특성을 한국방송개발원의 조선중앙TV의 프로그램 내용분석 결과<sup>13</sup>를 보면, 첫째로 북한 TV의 가장 큰 특징은 유사한 주제를 상호 인접시켜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함포 사격형 편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중소형 발전소’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화요일에는 ‘염소 기르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요일은 ‘버섯 기

<sup>12</sup> 강현두, 앞의 책, pp.177-178.

<sup>13</sup> 한국방송개발원, 북한방송 개방에 관한 정책보고서, 1998.9, pp.24-27.

르기'에 관한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3개씩 편성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함포 사격형의 프로그램은 주로 자력갱생과 같은 당의 방침에 관련된 것으로 오락성보다는 주로 정보성, 그리고 일상성보다는 선동성이 강한 것들이다.

둘째로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앞뒤에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 노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특징적인 것은 노래의 내용이 앞 프로그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내용에 상승효과(synergy)를 유발하는 형태를 지닌다.

셋째로 조선중앙 TV방송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재방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체방송시간에서 재방된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이르고 있다. 이는 방송시간을 다양하게 채울 수 있는 비디오 소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대별로 북한 텔레비전 방송의 편성 특성을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의 편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방송과 같이 주시청자의 시간대별 편성유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오후 5:30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6:00까지 주로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나 공연 물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이 오후 5:00부터 6:30경까지 어린이 시간대로 운영되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6시부터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정보나 캠페인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7시부터 8시까지는 정치성과 선동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주로 김정일 찬양,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방송은 6시부터 8시까지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고 있음에 차이가 난다.

저녁 8시부터는 남한의 9시 시간대와 비슷하게 메인 뉴스성의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유일한 드라마가 편성되거나 아니면 시사 해설 프로그램이 편성된다. 9시대에는 텔레비전 상식, 시사해설, 외국인이 지은 시, 연주회와 같은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프로그램이 요일별로 편성되고 있다.

10시대에는 주로 재방송 프로그램이 배치되고 아울러 8시 메인 뉴스의 일부 꼭지를 재방송하는 마감뉴스 형식의 프로그램을 방송한 후 방송을 마친다. 따라서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은 주민들의 생활시간대에 따르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남한방송의 편성시간대와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용에 있어 북한의 방송은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교육시키는 기구이자 이를 위한 선전과 선동, 그리고 조직 수단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방송에서처럼 오락성이나 신속성 그 자체가 강조되지 않으며 당의 목표라는 한계 내에서 오락성과 신속성의 의미를 갖는다. 즉 인민을 교양 시켜 주체적인 사회주의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위해 내용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라는 수준에서의 오락성과 신속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일이 문화성과 예술성을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문화와 예술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문화적이고 예술적으로 방송 내용을 통해 주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교양 시키는가 라는 수단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북한의 방송은 방송의 내용과 형식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시청자의 흥미 파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마다의 당의 목표

에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북한방송의 성격 때문에 방송의 내용이 보도, 교양, 오락 등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보도, 교양, 오락 등 그 어느 것에서도 공통되는 내용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모든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의 전체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담겨지게 된다.

- ① 김일성 주체사상과 혁명활동을 선전함으로써 김일성을 이상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한다.
- ② 당과 정권의 정책을 선전하고 산업, 경제부문 및 생산활동을 고취시켜 주민들을 생산활동으로 조직, 동원을 선동한다.
- ③ 국내외 소식이라는 형식으로 김일성 김정일과 북한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인다.
- ④ 음악 및 드라마라는 형식으로 북한 주민을 조직, 일체화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이상화 한다.
- ⑤ 공산주의 및 김일성 사상을 해설, 선전하면서 자본주의를 비난한다.

이상의 내용이 북한방송 프로그램 범주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방송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그런데 북한방송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김일성 부자를 이상화하여 이를 널리 선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화는 보도 물, 해설 물 등 교양물에서 뿐만 아니라 방송소설이나 극영화 등의 픽션적 창작물에서도 동일하게 강조 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방송은 혁명전통 교양, 사회주의 우월성 선전, 미국과 일본 등을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교양, 계급교양 선전, 공산주의 교양선전 등을 강조 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김일성 부자의 선전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꼽힌다. 따라서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위해 교육, 과학, 문화예술, 보건, 체육 등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당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그 결과를 소개하며, 자연, 지리, 역사를 비롯한 일반상식과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세계의 건설을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주의화가 선결과제가 되므로, 한국 주민들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노동당의 방침과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적극 선전함으로써 한국 주민들을 감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텔레비전의 경우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이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제선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고 한국의 드라마와 같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만수대 텔레비전방송은 예술 공연 단 및 국내외 영화전용 상영채널로서 영화와 혁명가극 같은 예술 작품들을 주로 방송하고 있는데 이들 예술 작품들의 내용도 모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주제를 갖도록 하고 있다.

북한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선중앙 TV의 방송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찬양 및 충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주제들 중에서 자립적 생산력강화가 14.6%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총체적인 경제난

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력갱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조선 중앙 텔레비전 프로그램 주제

주 제	빈 도(개)	비 율(%)
김일성 일가 찬양 및 충성	131	54.6
자립적 생산력 향상	35	14.6
전쟁능력 강화	13	5.4
사상강화 및 체제우월성 선전	20	8.3
남한사회 비판	6	2.5
윤리의식 고취	13	5.4
뚜렷하지 않음	3	1.3
기 타	19	7.9
총 계	240	100

자료 : 방송개발원, 『북한방송의 개방에 관한 연구』, 1998.8, p.41.

이러한 특징은 북한에서 라디오와 달리 텔레비전은 문화성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매체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편 새로운 방송 채널인 교육 문화 텔레비전 방송은 기존의 중앙 텔레비전과 달리 문화, 체육, 교육소식을 중심으로 짜여져 인기를 얻고 있다. 주요내용은 교육, 과학지식과 일반상식, 사회문화 생화, 체육, 예술 등 다섯 가지이다.

또한 북한 텔레비전방송의 편성내용을 보면 만수대 텔레비전방송은 영화와 혁명가극이 전체 편성상의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중앙 텔레비전의 경우도 영화와 혁명가극이 48.1%를 차지하고 있다. 1993

년 8월 조선중앙 TV의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보면 계몽 선전영화가 35.6%, 스포츠가 21.1%, 단막극이 13.0%, 뉴스가 10.0%, 음악이 9.0%, 대담, 안내 등이 5.6%, 그리고 아동시간이 5.2%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그러나 한국방송개발원에서 1998년 3월 9일에서 3월 15일까지 조선중앙TV의 방송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1993년과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조선 중앙 텔레비전 프로그램 형식 특징

장르	빈도	장르별 시간비율(%)
다큐멘터리	26	19.69
뉴스	43	17.03
영화	5	14.63
노래	108	12.26
드라마	5	7.53
문화예술	6	4.99
생활정보	14	4.49
스포츠	5	4.28
코미디	6	3.75
버라이어티	2	3.36

<sup>14</sup> 남북문제연구소, 남북한 방송개방 환경은 어떠한가?, 1998, p.20.

만화	5	2.60
캠페인	8	1.94
방송야회	1	1.63
대담	2	1.60
시 낭독	4	0.21
계	240	

자료: 한국방송개발원, 「북한방송의 개방에 관한 연구」 1998.8, p.28.

이상의 내용을 프로그램 장르별로 오락적, 정보적, 교양·선동적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오락장르가 41.15%, 정보장르가 23.12%, 교양·선동적 장르가 35.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장르별 특성을 보면, 뉴스, 다큐멘터리, 대담, 드라마, 코미디, 영화, 만화, 인형극, 버라이어티, 스포츠, 생활정보, 문화예술, 방송야회, 캠페인, 중간노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남·북 방송 프로그램 편성 및 내용을 통해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먼저 편성에 있어 북한의 방송내용과 형식은 이미 당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제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방송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거의 완전하게 가까운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남한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남한에서는 방송법상에 방송 편성의 분명하게 자유를 명시하여 내용과 형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오히려 방송 프로그램이 획일화 되는 것을 우려하여 각 방송사는 보도, 교양, 오락물을 일정부분 이상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편집과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잘된 편성과 편집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진 편집 물을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 배열하되, 이것이 김일성 부자의 위대성 선전이나 당정책 의도에 잘 부합 하는 편성 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남한에서의 편성전략은 얼마나 많은 수용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면 북한에서의 편성전략은 방송선전의 목적과 방향, 중점을 정하고 시기와 전황에 맞게 편집내용과 형식, 편성방법을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편집과 편성과 정에서 계획을 짤 때부터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므로 북한의 편성과정은 당에 의해 종속되고 당의 유일 관리제 원칙에 의해 정당화 된다.

일반적으로 방송편성에 대한 원칙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상당히 다르다. 즉 남한의 방송편성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편성을 유지하는데 비해, 북한의 방송편성은 정규편성보다 김일성 부자와 당정책의 요구, 정책적 문제가 더 우위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광범위한 대중을 방송에 끌어들이기 위해 방송편성의 정규화, 규범화도 강조하는 새로운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정규적인 편성이 잘 이뤄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방송편성도 남한의 방송편성과 같은 방송시간에 따른 프로그램 배열을 합리적으로 짜는 것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계층별로 즉 어린이, 청소년 등 시간대를 선정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 방송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김일성 부자의 혁명활동과 관련

된 방송 물이 배치된다는 점에서 남한과는 다르다. 남한은 주로 가장 인기 있는 오락물인 드라마 등을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배치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남한의 방송편성의 가장 큰 결정요인이 시청자들의 반응인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시간배치와 시간분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치적 중요도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일수록 좋은 시간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에서 일반대중의 실정을 가장 잘 고려하는 남한의 방송과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는 남북한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비교가 가능 하다. 우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와 종류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성격에서 남북한이 취하고 있는 체제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띠고 있으며, 세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유입되는 프로그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첫째로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 프로그램 장르도 다양하지 못하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 자체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프로그램은 주로 보도, 해설, 대담 등의 정보적이고 교육적인 장르에 집중되어 있고 드라마, 코미디 등은 거의 제공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에서는 지상 파 방송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전달 할뿐만 아니라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정치 색이 강한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 한다. 앞의 프로그램 내용과 주제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치적이다. 심지어 음악과 다큐멘터리, 좌담프로그램도 정치 색을 띠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문화 물이나 오락물의 비중은 매우 적다. 이에 비해 남한의 방송은 각 방송사 별로 독특한 성격을 유지하나 방송법에서 각 방송사가 보도, 교양, 오락물의 편성비중을 규정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방송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주로 오락적인 내용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로 북한의 방송은 외래문화의 국내로의 유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해외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뉴스는 물론 외국인과 서양음악이 방송에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비해 남한 방송은 국내 프로그램의 보호차원에서 외국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 비율을 지상 파의 경우 20%, 케이블TV의 경우 20~50%로 제한하고 있으나 뉴스 등에 있어서 외국의 정보는 자유롭게 방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국내상황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국내외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프로그램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락프로그램등에 익숙해져 있는 남한 국민들과는 가치체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남·북한 임꺽정의 등장인물연구

남한의 SBS방송국에서 창사6주년 특집 극으로 1996년 11월10일부터 1997년 4월까지 총44회를 방송하였다. 남한의 방송 임꺽정은 원작 임꺽정의 등장인물에 대해 많은 신분상의 차이를 많이 왜곡 하지 아니하고 등장인물을 재미와 교육 위주로 각색을 하여 작업하였다. 반면, 북한의 임꺽정은 1987년에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왕재산 제작단에서 제작된 「의형제편」 과 「결의편」 의1부와2부로 나누어 영화 화 하고, 1988년에 「청석골편」 과 「서울편」 의3부와 4부로 제작완료 했다. 북한의 임꺽정은 천민계급(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귀족계급(부르조아 계급)을 타파한다는 계급투쟁 이념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른바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란이 있게 된다는 투쟁의진리」 를 묘사했다는 것이 북한당국의 영화에 대한 설명이다.<sup>15</sup>

북한의 임꺽정 영화를 남한에서는 KBS방송국에서 북한특집으로 10회 방송한 것 중 의형제 편까지를 기본으로 삼아 연구한다.

### 1) 임꺽정; 백정출신 도적의 괴수.

임꺽정의 자라온 환경을 보면 함흥 고리백정 임돌과 양주 쇠백정 피선의 딸 애기 사이의 아들로 태어난다. 누이인 섭섭이가 있고 동생인 팔삭동이가 있었다.

임꺽정은 7세 때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힘도 장사이며 이때부터 세

---

<sup>15</sup> 노재승, 북한영화계:1977-1988. 영화진흥공사,(격월간영화 제125호('89년7월호)별책부록)p159,p174.

상을 보는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7세에 몽근 벼 한섬을 예사로 나르고 장년이 되어서는 청동화로를 오그려 놓을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 그러한 임격정은 前 계양산 화적의 괴수였던 노인에게서 검술을 배우고 장광도를 얻는다.

조광조 사화 때 연루되어 죽은 김식의 아들인 김덕순과 교유하며 양반들과도 교유한다. 백두산 허항령에서 운총이와 황천왕동이를 만나 3년 연상인 운총을 아내로 정한다.

35세에 칠장사에서 허담에게 말 타기를 배운다. 을묘왜변때 군 총으로 자원했으나 백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뽑히지 아니하여 단독으로 출전한다. 임격정은 자신이 처한 세태에 대해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소설에 묘사된 임격정의 생김새는 수염으로 대표된다. “구레나룻과 윗수염이 술이 많거니와 아래수염이 길었다.

검은 눈썹아래에 큰 눈이 박히고 넓은 얼굴 복판에 우뚝한 코가 솟아서 어느 모로 보나 장부다운 중에 시켜면 좋은 수염이 장부의 위풍을 돌아보이었다.<sup>16</sup>

여기에 덧붙인다면 화가 날 때 보이는 버릇으로 눈에 흰자위가 많이 드러나고 아이적부터 상을 찌푸리기를 잘하여 이마에 주름이 많았다. 또한 그의 성격은 상황에 따라 돌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7</sup>

---

<sup>16</sup> 홍명희. 임격정, 서울:사계절, 1985, 권3, pp.245-246.

<sup>17</sup> 이창구, 홍명희 「林巨正」 인물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29.

2) 이장 곤; 실제인물을 통해 시대상을 말한다.

홍문관 교리 벼슬을 다니던 이 장곤 은 무오사화후 갑자 년에 연산군에게 덕을 강조하다 거제로 귀양을 간다. 귀양가서 도주하여 함흥의 고리백정 양주삼의 딸 봉단이와 결혼하여 신분을 숨기고 산다. 중종반정 이후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예문관 應敎를 제수받아 상경한다. 상경후 동부승지로 승진하고 백정의 딸 봉단은 왕의 특지로 숙부인이 된다. 후에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가 기묘사화때 병판으로 금부당상을 한다. 기묘사화 후 창녕으로 낙향한다. 남한의 임꺽정 속에서는 이장곤의 행적이 자세히 그려지지만 북한의 임꺽정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다. 북한의 영상 물들에서는 부르주아계급(양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있어 양반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장곤의 행적이 자세히 그려지고 있지 않다. 소설 속의 이장곤은 실존하는 인물이며 처숙인 양주팔과 함께 신분체제를 오가며 최상층의 사대부와 최하층인 백정 사이를 연결해 주며 후에 전개될 임꺽정의 이야기와 계층간의 갈등, 연계등을 예고하는 인물이 된다. 소설 속 이장곤의 외형적 특징은 키가 크고 생김새가 우락부락하며 유난히 큰 발이 특징이다. 문관이면서도 말 타기와, 활 쏘기를 즐긴 것으로 소설에서는 묘사되고 있다.

3) 양주팔; 양반과 천민들간의 연결 통로.

양주팔은 이장곤의 장인인 양주삼의 동생으로, 이장곤이 함흥으로 도망 왔을 때 처음보고 천인이 아님을 안 양주팔은 주삼이 내외에게 사위 삼을 것을 종용하여 성사 시킨다. 이장곤이 양주삼의 딸 봉단이와

결혼 후 주삼의 집에 데릴사위로 있을 때 이미 백정학자의 칭호를 얻고 있을 만큼 천인이면서도 학식이 있었다. 이장곤이 중종 반정 후 복과 되어 서울에 올라간 후 양주팔을 시켜 봉단을 서울로 올라오게 한다. 서울에서 머물다 묘향산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정희량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어 도를 닦는다. 혜화문에서 갖바치 일을 하며 조광조 등과 교유 하며 사대부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다. 아들 금동이를 임들의딸 섭섭이와 결혼시킨 후 섭섭이의 동생 걱정이를 서울로 데려와 이봉학, 박유복과 함께 제자로 두고 가르친다. 그 후 묘향산 보현사에서 중(병해대사)이 된다. 그는 85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친다. 남한의 임걱정에서는 양주팔의 생애를 비중 있게 다루지만 북한의 임걱정에서는 을묘왜변 후 박유복, 배돌석, 임걱정의 대화 속에서만 비춘다. 소설 속에서 특이한 양주팔의 외형적이미지는 찾을 수 없으나, 처음 등장하는 양주팔의 모습은 백정학자에서 혜화문 갖바치 그리고 병해대사로 신분적인 설명이 외형적인 묘사를 대신 한다.

#### 4) 이봉학; 군 총에서 현감까지

중실 서자인 이학년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가 죽자 외조모를 따라 5,6세때 부터 갖바치에게 글을 배우며 활 쏘기를 익힌다. 을묘왜변이 나자 군총으로 자원하여 남치근의 수하로 들어가 적장 말의 두눈을 활로 쏘아 잡고 단장으로 승진 한다. 그 후 전주로 내려가서 공방비장이 되고 기생 계향과 함께 지낸다. 外所部長을 지내다 윤원형의 첩 난정의 시녀와 다툼 끝에 벼슬이 없어진다, 후에 군 시기 직장으로 복직되었다가 임진별장으로 옮겨진다. 임걱정이 파옥하고 도망갈 때 임진에

서 배를 내어준 힘으로 압송 되던 중 청석골의 황천왕동과 , 길막봉이  
가 혜음령 고개에서 구출하여 청석골에 입당 한다. 이봉학은 상류도 아  
니고 하층민도 아닌 중류층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봉학이  
세상을 살았던 과정이 그 당시 세태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인  
물이다. 특히 임꺽정 일당 중에서 유일하게 천민의 생활과 관원으로  
수령 직까지 하며 관의 우두머리 생활을 겪은 인물로서 도적이 되는데,  
도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일과 도적으로서 관에 대항하는 상반적  
인 역할을 한다. 이봉학의 어린 시절에는 몸이 약하고 가냘프며 눈치  
빠른 것으로 표현되다가 청년이 되어서는 기개 있고 총명한 인물로 묘  
사, 귀신 같은 활 솜씨를 갖고 있다. 북한의 임꺽정에서는 이봉학이  
청석골로 오기전의 행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않다, 을묘왜변  
후 벼슬을 얻어 임 지로 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 5) 박유복; 댓가지 창(뺨창)의 명수

아버지가 농군으로, 조광조를 흠모하다 관가에 끌려가 맞아죽고 난  
후 어머니와 심정의 집에서 행랑살이를 한다. 5,6세 때부터 갖바치에  
게 글을 배우고 꺽정이, 봉학이와 의형제를 맺으며 꺽정의 힘과 봉학  
이의 활 솜씨에 자극받아 댓가지 창을 던지는 연습을 한다. 박유복이는  
그 후 배천 이모부 덕으로 이사를 하나 일년도 못되어 이모가 죽고 또  
어머니 까지 돌아가시니 이모부 덕에서 이종 매로 지내다 이모부의 계  
집 사단으로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니다가 맹산에서 앓을뱅이 병에  
걸려 10여년을 고생한 후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는 노인이 준 환약  
을 먹고 병을 고친다. 그 후 중국 땅에 들어가 때놈들과 접전을 한다.

이후 약초 캐는 노인으로부터 차력약까지 얻어 먹고 힘도 세어 진다. 아버지의 원수인 노가를 찾아 원수를 죽이고 덕적 산으로 도망을 가던 중 최영 장군의 사당에 장군마누라로 뽑혀온 작은년을 처로 삼아 함께 도망한다. 도망중 청석골에 들어와 유복의 처 작은년이 청석골 오가 내외의 수양딸이 되어 청석 골에서 살게 된다. 이곳은 훗날 임꺽정을 대장으로 하는 청석골 도당의 근거지가 될 것을 암시한다. 오가와 함께 탑 고개에서 도적질을 하던 중 곽오주를 만나 의형제를 맺는다. 박유복의 성격은 어린시절엔 의뭉스러워 재주를 익히면서도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질 때까지 아무도 뺨창을 배우는 것을 모르게 하고 도적이 되어서는 융통성이 없어, 도당의 새로운 거처를 세울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궁핍한 생활을 하는 자기의 친척 별되는 이에게 대장의 허락이 없다는 이유로 상목 몇자 끊어 주지 못한다. 고지식 하고 의리가 강하며 걱정이에게는 충성스런 인물로 나타난다. 북한산의 임꺽정에서는 이봉학보다 더욱 세밀히 묘사가 된다, 이봉학은 벼슬을 하며 지내는 과정들이 있지만 박유복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기에 북한산의 사상에 더욱 근접한 인물이기에 더욱 상세히 묘사가 되고있는 것 같다.

#### 6) 곽오주; 탑 고개의 쇠도리개 도적.

강령 향나무골 빈농의 오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여섯살에 어머니, 아홉살에 아버지를 여의어 연안등지를 떠돌며 머슴살이를 하던 중 개래동 정침지 댁에 정착 한다. 탑 고개에서 박유복의 장인 오가를 혼내준 인연으로 박유복과 의형제를 맺는다. 신뺨골댁을 정침지댁 외아들의 청으로 보쌈 해 왔으나, 우물에 빠져 죽으려는 것을 살리고 아내로 얻

게 된다. 곽오주의 아내는 아기를 낳자마자 죽고 오주는 젓먹이 아들의 젓 동냥을 다니다 아이가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자 정신착란 상태가 되어 아기를 내동댕이쳐 죽인다. 그 후 어린아이 울음소리만 들리면 미치광이가 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성격의 난폭성과 괴팍함이 비추어진다. 곽오주는 청석골 도당중 야담에서 따 온 인물이다.

북한의 임격정에서는 정침지 아들의 부탁으로 보쌘을 해와서 우물에 빠진이를 곽오주가 살려서 정침지가 곽오주와 살게 한다, 그러나 정침지의 아들이 오주의 처를 욕 보이려 하다, 오주의 아기를 실수로 죽이게 된다. 그래서 곽오주가 정침지 아들 일가를 죽이고,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실성한 사람처럼 변한다.

그 후 청석골로 들어 가게 된다.

#### 7) 길막봉이; 소금장수 출신의 천하장사.

길막봉이의 매부인 손가가 탐 고개에서 곽오주에게 쇠도리끼로 얻어 맞아 산송장과 다름없이 되자 곽오주에게 복수를 하기위해 탐 고개에 온다. 곽오주를 만나 주먹으로 때려 누이고 송도 관가에 넘기려 끌고 가다 탐 고개 동네에서 오가의 사주를 받은 동네 사람들로 부터 대접을 받으며 지체한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임격정, 박유복과 만나 화해한다. 소금을 팔러 다니던 중 박선달의 조카딸 귀련을 처로 맞아 그 집의 데릴 사위로 들어 간다. 박선달과 장모에게 상놈사위라는 구박을 받으며 살다, 쫓겨나서 청석골 오가의 권하는 말을 듣고 청석골로 들어와 도적이 된다. 막봉이는 사 형제 중 막내이고 몸집이나 생김새 등이 가장 거물스럽고 괴기스럽다.

성격은 그의 아버지 말을 빌리자면 ‘남이 바루 가라면 짓구지 외루 가는 사람’<sup>18</sup>으로 우직하면서도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청석골에서도 임걱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몰래 빠져 나와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관가에 잡히게 된다.

8) 황천왕동; 백두산 출신, 보첩여비의 인물.

도망한 관노비의 자식으로 백두산 허항령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와 누이 운총과 함께 사냥으로 생활한다. 임걱정이 천왕동이의 누이 운총이와 혼인을 하게 되어 누이를 따라 양주에 와서 걱정의 집에서 살게 되며 이때 장기에 심취한다. 장기에 심취하여 장기를 잘 둔다는 이들을 찾다가 봉산 이방이 마침 사위 취재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취재에 합격하여 백이방의 딸 백옥련과 혼인하고 데릴 사위가 된다. 장인의 주선으로 봉산의 장교가 된다. 호랑이 사냥에서 배돌석과 친분을 맺고 그 후 배돌석이 살인을 하고 도망하다 잡혀 압송될 때 청석골 패를 시켜 빼돌린다. 배돌석 사건에 연루 되어 제주로 귀양간다. 귀양에서 돌아와 지내던 중 걱정의 가족이 옥에 갇히자 걱정과 함께 파옥하여 가족을 데리고 청석골로 들어간다. 천왕동이는 산속에서 산짐승처럼 자랐을 뿐 아니라 천생이 걸음이 재어서 하루에 사백리를 갔다. 황천왕동이는 16세까지 사람이라고는 누이와 어머니 밖에는 모르고 자랐는데, 양주에 와서 있는 동안 그의 성격은 모가 나지 않고 대인관계의 허물도 없이 잘 지내고 게다가 장기의 고수가 될 정도로 영리한 인물로 나오며 남자들 간의 의리와 신의도 지킬 줄 아는 훌륭한

---

<sup>18</sup>, 홍명희, 앞의 책, 권5, p.18.

대장부로 그려졌다.

청석골에서는 빠른 발을 이용하여 정보 수집과 연락책의 역할을 한다. 자기의 의지보다는 걱정의 행로에 따라 도적이 된다.

#### 9) 배돌석이; 돌팔매의 명수.

경상도 김해 사람으로 을묘왜란 때 투석 대에 들어가 전공을 세운다. 난리가 평정된 후 방어사의 친척 되는 위장에게 칼부림을 하여 상급도 못타고 귀향하여 술망나니 소리를 들으며 생활하던 중 김도사댁 비부장으로 들어가 여비와 혼인한다.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김해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서 금 교 찰방의 하인 노릇을 한다. 호랑이가 인명을 살상하여 호랑이 사냥꾼으로 뽑혀 사냥 중 황천왕둥이를 만나 가까워진다. 호랑이에게 아들을 잃은 여인의 청으로 그 집에 들렀다가 미망인이 된 며느리와 눈이 맞아 혼인을 하고 역졸 생활을 한다. 또 배돌석이는 같이 사냥을 나갔던 김가와 그의 아내가 놀아나는 것을 알고 복수의 방편으로 김가의 아내를 취하려다 이를 알고 달려온 김가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싸움을 하던 중 김가를 몽치로 쳐 죽이고 도망하다가 잡혀, 황주로 압송 중에 황천왕둥이의 연락을 받은 청석골 패가 구출하여 청석골에 입당한다. 배돌석이는 을묘왜란 후 자신의 한번의 잘못으로 상을 받지 못하고 귀향하여 밀바닥 생활을 전전하며 울분의 나날을 보내는 동안 포악한 성정이 더욱 포악스러워 지고 행실도 평상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작태의 연속으로 그 결과가 도적으로 귀결된다. 배돌석은 곽오주와 더불어 도적이 되기까지 가장 도적다운 인물에 가까운데 정작 도적이 되어서는 그의 성질을 죽이고 도당을 따르는 면모를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임꺽정에서는 을묘왜란 때 임꺽정을 만나고 난 이 평정 된 후 고향으로 돌아간다.

배돌석의 외형적 특징이라면 ‘키가 작달만한, 가슴은 바라질 대로 바라지고 얼굴은 가무잡잡한데 이목구비가 오종종 하게 박히었었다.’<sup>19</sup>

그 외의 인물들, 왕족들로는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등의 왕과 인수대비, 문정왕후의 이야기 도 있고, 관료 층의 인물로서는 조광조, 김식, 김덕순, 정희량, 윤원형, 윤원로, 윤임, 남곤, 심정, 조식, 이지함, 이황, 서경덕, 정난정, 황진이, 등 당시 사회의 역사적 인물들이 대거 등장 하며, 허구의 인물로서는 양주삼내외, 이장곤 유모의 아들인 김삭불, 임꺽정의 외할아버지, 청석골의 원주인 인 오도개치, 박유복의 아버지 원수인 노침지, 길막봉이의 처삼촌 박선달, 이밖에 여인들을 살펴보면 이장곤의 처 봉단이, 걱정의 누이 섭섭이, 걱정의 어머니 애기, 이봉학의 기생출신 아내인 계향, 걱정의 첫번째 아내 운총, 두번째 산림골 박씨, 세번째 아내인 원계겸의 딸 원씨, 네번째 아내 김씨, 박유복의 아내 작은년이, 곽오주의 아내 신벳골댁, 길막봉이의 아내 귀련이, 황천왕 동이의 아내 백옥련, 임꺽정과 어울린 기생 소흥이 등 무수히 많은 등장 인물이 있다. 그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들도 있고, 재미에 의해 등장한 이들도 있다.

---

<sup>19</sup>, 홍명희, 앞의 책, 권3. p.340.

### Ⅲ. 남 · 북한 분장 비교

#### 남 · 북한 분장연구 비교

- 1) 임꺽정; 남한의 임꺽정 분장연구는 성인이 된 후부터, 그 이전의 분장은 북한의 분장과 비교 불가하므로 성인이 되고 난 후부터 연구비교를 한다.



사진 1. 남한의 임꺽정(정홍채)



사진 2. 북한의 임꺽정(최창수)

사진1의 임꺽정은 성년이 된 후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다. 사진2의 북한 임꺽정은 명종10년 1550년 20대 후반의 모습이다. 북한의 임꺽정에서 왜군들과 전투를 하는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임꺽정의 외형적 모습이다.

남 · 북한의 임꺽정에 캐스팅 된 연기자의 얼굴형은 넓은 얼굴이다. 넓은 얼굴을 갖은 사람은 좁은 얼굴에 비하여 성격이 대담하고 적극적이며 리더십이 있다. 얼굴 넓은 사람은 체격이 뛰어나고 튼튼하기 때문에 매우 활동적이다.

얼굴의 형태로서는 모두 임꺽정의 외형적 이미지와 잘 맞는다.

임꺽정은 사극(고전극)의 범위에 속 한다.<sup>20</sup> 사극의 특징은 연기자들의 얼굴 톤에서부터 차이를 둔다. 사극에서는 대기권의 공해 물질들이 많지 않기에 자외선의 대기권 진입 양이 많아지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구릿빛의 건강한 피부를 갖을 수 있었다 한다. 그래서 사진3 과 사진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얼굴이 모두 구릿빛을 띠고 있다. 북한의 임꺽정은 눈 두덩 이에 강하게 음영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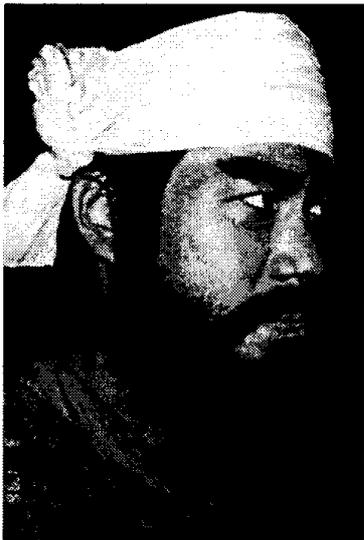


사진 3. 수염을 붙인 모습



사진 4. 북한의 임꺽정

사진3에서 는 임꺽정의 거친 성격을 표현하기위해 막 수염으로 구레나룻까지 붙이었다. 인조사 수염을 사용하여 턱 수염과 구레나룻는 직접 붙이기(나마)로 붙이고 콧수염은 뜯수염을 사용 하였다.<sup>21</sup>

사진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북한의 임꺽정은 턱 부분의 수염이 거친 것으로 보아 본인의 수염에 몇몇 부분들만 추가로 수염(말총)이 붙여 진 듯 보여진다, 눈썹의 형태를 보면(호미눈썹) 강한 이미지를 위

<sup>20</sup> 강대영, 앞의책, p.105.

<sup>21</sup> 정완식과의 인터뷰, 2002. 10.

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눈썹에 덧붙이기를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눈썹에 접착제 나 헤어 용품 등을 사용하여 강하게 형태를 잡아 표현하였다.



사진 5. 눈썹을 강조 하기 위해 붙임



사진 6. 남한의 임격정

사진5, 남한의 임격정은 눈썹을 더욱 강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인조사를 사용하여 덧붙이기를 하였다.

눈썹이 자라는 결 방향과 함께 형태를 잡아주었다.

남한의 덧붙이는 수염은 인조사를 사용하였고, 때로는 인조사와 생사를 섞어서 사용을 할 때도 있다. 인조사만을 사용하면 탄성이 강한 느낌과 수염의 반짝임이 조명을 받으면 실제보다 많아진다.

북한은 말총을 사용하여 덧붙이기와 수염시술을 하였다. 말총을 사용하여 시술 시, 시술자가 디자인한 대로 표현하기가 까다로우며 결과물이 젊은 평민, 천민 등의 짧은 수염 등은 어울리나 양반의 긴 수염 등은 정리되지 않아 보이고 어색해 보인다.



사진 7. 남한의 임궛정



사진 8. 북한의 임궛정

사진7의 임궛정은 거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진8의 임궛정에 비하면 정리되어 있는 수염의 형태를 갖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양반이나 평민들에 비교하면 거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남한에서는 인조 사 등을 사용하여 수염을 시술하고, 북한에서는 말총을 사용하여 시술하는 차이일 것이다. 현재 남한의 MBC 방송국에서는 사극 상도에서 야크털을 사용하여 수염을 시술했었다.<sup>22</sup> 사진7의 임궛정은 정리된 민머리와 머리카락, 수염이 아래로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전체적인 얼굴의 이미지가 사진8 북한의 임궛정에 비해 외소하고 길어 보인다. 사진9와10을 보면 사진에 앞에서 분석한 임궛정의 외형적 특징 중 하나인 이마의 많은 주름이 보이지 않는다. 소설 속의 임궛정의 외형적 특징이 극중에서는 변형되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를 보여주는 경우일 것이다.

---

<sup>22</sup> 유승태와의 인터뷰, 2002. 09.



사진 9. 북한 의 임격정



사진10. 민상투(민머리)

사진9와 사진10에서 보여지는 임격정의 모습은 머리의 모양이 그대로 보여진다 망건이나 머리수건을 하지않은 기본 모습이다.

조선시대는 신분사회로 백정의 신분은 천민의 신분이었기에 신분을 표시하는 망건은 할 수 없었다. 북한 임격정 분장 중에 가장 많은 분장을 한 부분이 바로 민 상투(민 머리) 이다.

앞판과 옆판을 하나로 제작하여 시술하였다. 그러나 수염과 의상등에 비교하여 보면 너무나 단정한 느낌이다 눈썹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썹의 한 올도 설정된 상태에서 흐트러짐이 없으며 민 상투에서도 머리카락이 한 올도 밖으로 빠침이 없다 이러하듯 북한의 분장특징 중 하나는 칼로 무엇인가를 자른 듯 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사진11. 양반으로 변복한 북한 임격정



사진12. 양주골 사또

위의 사진11에서 보여 지는 양반으로의 변복에서는 수염의 양도 적어지며 형태도 정리된듯한 모습이다. 다른 배역의 북한 양반에 비해서 풍채가 있게 표현되어진다. 북한의 임격정에서 일반적으로 양반은 양민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하는 나쁜 이미지가 팽배하여 외형적으로 사진12에서 보여지듯이 야비하고 가볍게 표현을 많이 했을 것이다.

2) 이봉학; 군 총에서 현감까지 지낸 인물이다. 임격정, 박유복과 함께 어릴 때 혜화문에서 갖바치에게 모두 함께 글을 배운다, 서울의 활터에서 활을 익힌다.

어린시절 임격정, 박유복과 함께 의형제를 맺는다.

사진13의 이봉학은 어린시절 몸이 약하고 가냘프며 눈치가 빠른 것으로 소설에서는 설명되어 지고 있고, 힘을 위주로 싸움을 하는 배역이 아니므로 무관들 중의 외소한 수염의 형태로 설정 되어졌다. 남·북한의 이봉학에 캐스팅된 연기자의 얼굴형은 다소 차이가 있다. 남한의 이봉학은 네모진 얼굴을 가진 반면 북한의 이봉학은 좁은 얼굴이다. 좁은 얼굴의 사람은 소심하거나 세심하며 동정심이 있으며, 본인이 아무리

괴로워도 내색 하지 않는다. 책략을 꾀하는 일도 얼굴이 넓은 사람보다 능숙하다. 캐스팅면에서 보면 북한의 이봉학이 훨씬 소설 속의 외형적 캐릭터에 가까울 것이다.



사진13. 남한의 이봉학 (차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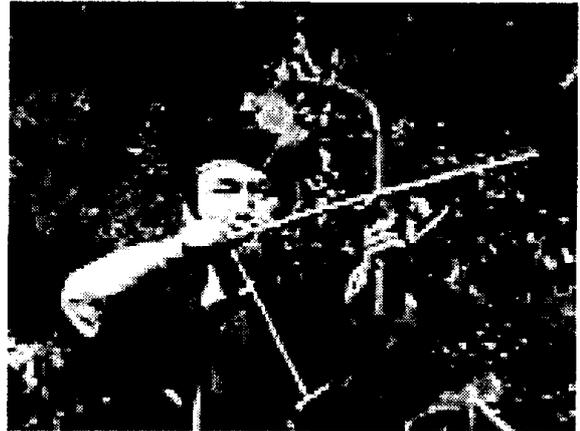


사진14. 북한의 이봉학 (랑해승)

머리의 모양은 서자 출신의 평민이기에 상투를 기본으로 하였다. 눈썹은 본인의 눈썹에서 강한 이미지를 주기위해 펜슬로 형태를 잡아 강조하였고, 콧수염은 얇게, 위 입술선 보다 약 1-2mm정도 위로 설정을 하여 약간은 가벼운듯한 이미지로 설정되어 졌다. 분장인 들의 일반적 상식에서는 관직에 종사하는 배역이라면, 나쁜 역할이 아닌 이상 입술 라인을 수염이 1~2mm정도 덮어 시술 하는 것을 안정적인 수염의 형태라는 것이 일반화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이봉학(차광수)이 가지고있는 본인의 이미지가 강한 느낌 이므로 배역의 외형적 이미지와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염의 형태로 이미지를 약화 시켰다.<sup>23</sup>

<sup>23</sup> 정완식과의 인터뷰, 2002. 10.



사진15. 남한의 이봉학



사진16. 북한의 이봉학

사진15의 이봉학은 관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다. 훨씬 피부색도 붉어지고 수염의 모양도 무게 감을 더한 이미지가 풍겨온다. 반면 사진 16은 북한의 이봉학이 을묘왜란후 관직을 얻고 임꺽정과 헤어지기 전의 모습이다. 머리는 남한의 이봉학과 다르게 민 상투(민머리)를 하고 앞판 옆판을 사용하였다. 북한의 이봉학은 실제 감이 강한 수염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 본인의 자라난 수염 위에 일부분 만 말총을 사용하여 덧붙이고, 정리를 하지않고 막자란 수염의 형태로 표현한 듯 하다. 코 수염부분은 양쪽 끝단 말아올렸다. 북한의 임꺽정에서 이봉학은 을묘왜란 후 임지(任地)로 떠나는 것이 의형제 편에서는 마지막이다. 소설 속의 이봉학은 관직(부르조와)을 오랫동안 하므로 북한에서는 많이 다루지를 않았을 것이다. 결의 편에서 임꺽정이 임진에서 파 옥을 하고 도망갈 때 배를 내어준 혐의로 압송되던 중 황천왕동과 길막봉이의 구출에 의해 청석 골로 들어 간다.

3) 박유복; 댓가지 창(뽕창)의 명수. 5,6세 부터 갖바치에게 글을 배웠다. 앓을병이 병으로 10여년 고생 후 어떤 노인의 도움으로 병을 고친다.



사진 17. 남한의 박유복 (정규수)



사진 18. 북한의 박유복 (리용운)

남·북한의 박유복 에 캐스팅 된 연기자들의 얼굴형은 차이가 있다. 남한의 박유복은 둥근 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박유복 얼굴형은 넓은 얼굴이다. 둥근 얼굴형의 성격적 특징을 보면 남과 다투는 것을 싫어하고 부지런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의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성격의 사람이다.

박유복의 얼굴형은 앞에서 눈 한 바와 같이 대담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설 임궫정에서 박유복의 성격은 남한의 박유복의 얼굴형에 더욱 근접 할 것이다. 사진17 남한의 박유복은 평민이므로 상투를 하였다. 콧수염은 뜬 수염을 사용하고 턱수염은 직접 붙이기를 하였다. 수염의 모양과 눈썹의 모양 등이 소설 속의 의뭉스럽고, 고지식하나 의리가 강한 이미지를 주고있다.



사진19. 북한의 박유복



사진20. 북한의 박유복

사진19와 20의 박유복 수염의 형태가 본인 것임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박유복은 의형제 편 처음부터 끝까지 수염의 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사진20의 박유복은 머리모양과 수염모양에 대해 많은 객관성을 준다. 머리카락의 방향성은 좋으나 모질의 차이가 인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턱 부분(하악골)의 수염형태는 머리의 가마와 같이 보여지므로 본인이 직접 기른 수염이란 것을 확인 시켜준다. 그러나 배역상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듯하다. 얼굴의 이미지가 의뭉스러운 것 보단 강직하고 충성스러우며, 힘이 있어 보인다.

박유복은 임꺽정과 거의 처음부터 함께하는 인물이다.

4) 곽오주; 탑고개의 쇠도리깨 도적. 평민 부모를 여의고 떠돌며 머슴살이를 하던 중 정 침지 집에 정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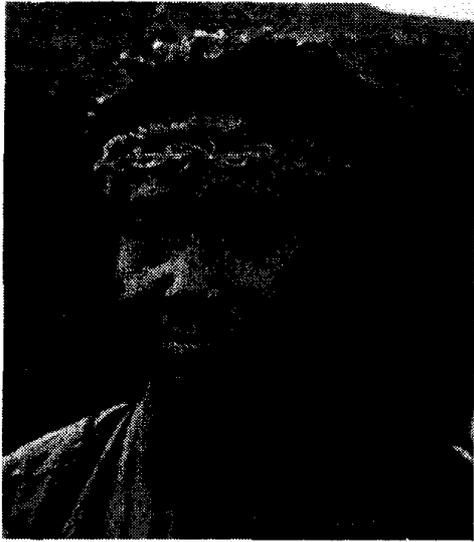


사진21. 남한의 곽오주(문영미)



사진22. 북한의 곽오주(신명욱)

곽오주는 앞의 분석처럼 정 침지 집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가 모든 것을 잃어, 미치고 난 후 청석골 도적이 된다. 미치기 전의 곽오주는 힘은 있지만 평범한 머슴이었다. 그러나 청석골 도적이 된 후 포악해졌다. 남·북한의 곽오주는 둥근 형의 얼굴이다. 둥근 형의 얼굴은 남과 닮는 것을 싫어하고 부지런한 성격의 소유자다. 곽오주가 미치기 전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얼굴형과 배역의 이미지가 어울릴 것이다.

곽오주만이 분장시간을 가장 적게 소비하는 배역 인물이다. 남한의 곽오주는 본인의 앞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가발의 앞부분을 잘 감추어 본인의 머리카락처럼 보여진다. 머리에는 총각가발을 쓰고 얼굴에는 검게 그을린 기본분장만 하였다. 곽오주는 미치고 난후 항상 긴 민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닌다. 남·북한모두 곽오주의 모습 속에서 긴 수염을 볼 수는 없다. 곽오주는 야담에서 따온 인물이다.



사진23. 미친후의 남한 광오주



사진24. 청석골의 북한 광오주

사진23은 남한의 광오주가 관군에게 대항하다 죽기전의 모습이다. 사진24는 북한의 광오주가 실성하여 청석골로 들어가서 탐고개의 쇠도리깨 도적 때의모습이다.

5) 길막봉; 소금장수 출신의 천하장사.



사진25.남한의 길막봉(손오균)



사진26.북한의 길막봉(최봉식)

남한의 길막봉과 북한의 길막봉의 등장시기가 다르다 남한의 길막봉은 광오주가 탑 고개에서 도적질을 할 때 등장하지만 북한의 길막봉은 을묘왜란후 임꺽정이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 오던 중 주막에서 사소한 다툼에 의해 배돌석, 임꺽정과 첫만남을 한다.

사진25와 사진26의 길막봉은 소설에 의하면 다른 형제보다 몸이 배는 크며 둥근 눈과 가로 찢어진 입, 거물스럽다는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길막봉은 소설에서 설명하는 길막봉의 외형적특징과 차이가 있다. 사진25의 남한 길막봉은 외형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염의 형태를 독특하게 설정이 이루어 졌다. 다른 인물들과 차별화를 위해 턱수염은 좁은 면적에 수염의 양을 많이 하고 콧수염은 범용의 끝부분에서 각이 지게 수염의 형태를 설정하여 소설 속의 외형적 특징들을 분장으로 만회하려 노력하였다. 반면 북한의 길막봉은 임꺽정보다 외소 하고 다른 배역의 인물들과 차이가 없다. 수염에서는 본인의 수염을 사용하여 콧수염은 턱수염에 비해 오랜 시간을 길렀으며 턱수염은 구레나룻까지 연결하여 기르고있다. 북한의 길막봉은 소설 속의 외형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길막봉은 상인의 신분 이면서 민머리를 하였다.

#### 6) 황천왕동;백두산 출신, 보첩여비의 인물.

백두산 허항령에서 출생, 어머니, 누이와 함께 사냥으로 생활한다. 임꺽정의 처남, 누나를 따라 양주에서 임꺽정과 함께 살게 되며 이때 장기에 심취 하게 된다.



사진27. 남한의 황천왕동(김홍표)



사진28. 북한의 황천왕동(리학철)

사진27의 남·북한의 황천왕동은 소설 속에 외형적 특징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외형적특징을 유추하기위해 자라온 환경과 연령으로 기본을 삼아 분장디자인을 했을 것이다.

소설 속에서 황천왕동의 처음나이는 16세로 나온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황천왕동이는 16세에 장가를 갈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는 총각머리 또는 더벅머리의 형태로 설정이 되어졌을 것이다. 남한의 황천왕동은 본인의 머리에 부분 가발을 연결하여 총각머리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북한의 황천왕동은 총각가발에 망을 붙여 앞,옆 머리를 심어 시술한 듯 보인다 . 황천왕동은 산속에서 자라온 환경에 의해 다른 배역의 인물보다 피부색을 더욱 진하게 하며 얼룩져 보이게 하였다.

남한의 황천왕동은 앞,옆 머리카락을 자연스레 흘으러 놓은 반면, 북한의 황천왕동은 가발에 심은 머리카락을 정돈 되게 모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29.남한의 황천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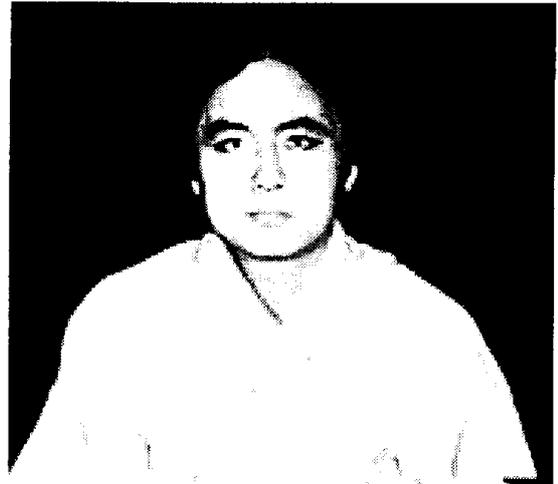


사진30. 북한의 황천왕동

남·북의 황천왕동에 캐스팅 된 연기자의 얼굴형은 좁은 얼굴이다. 좁은 얼굴형의 사람은 소심하거나 세심하다. 이런 타입의 사람은 어떤 큰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위의 이러한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바둑과 백이방의 딸 귀련과의 혼례를 성사시키는 노력등에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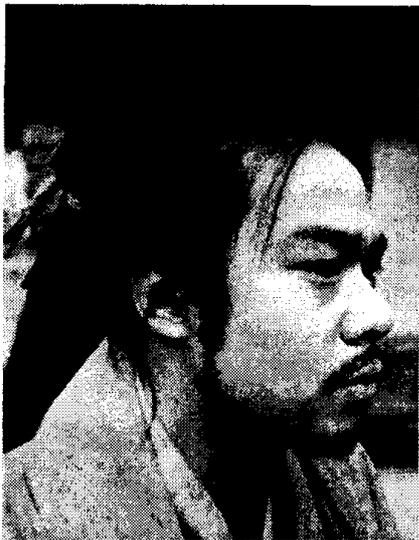


사진31. 수영을기른 황천왕동



사진32. 결혼후의 모습

사진31은 수염을 기르기 시작 한 모습 이며 수염은 인조 사를 사용하였으 며 콧수염 턱수염 모두 직접 붙이기로 시술하였다. 구렛나루와 만나는 턱수염 부분의 수염 양이 작아 보인다. 사진32는 북한의 황천왕동이 백귀련과 혼례후의 모습이라 상투는 하였지만 구렛나루 부분이 인위적으로 보이며 북한 황천왕동의 나이가 20대초반이 지난 나이 이나 이때까지도 수염을 설정하지 않았다.

7) 배돌석; 돌팔매의 명수. 소설 속 배돌석의 성정을 보면 을묘왜란 후 포악스러워 진다.



사진33.남한의 배돌석(이기영)



사진34.북한의 배돌석(고종환)

남·북한 배돌석의 얼굴형은 좁은 얼굴형이다. 소설에서 배돌석의 모습은 ‘키가 작달만한, 가슴은 바라질 대로 바라지고 얼굴은 가무 잡잡한데 이목구비가 오종종하게 박히었다.’<sup>24</sup> 남·북 배돌석에서는 분장디자인이 차이가 난다.

<sup>24</sup> ,홍명희, 앞의책, 권3. p340.

남한의 배돌석은 콧수염과 턱수염 모두를 길렀고 북한의 배돌석은 콧수염만 길렀다. 남한의 배돌석은 인조사를 사용하여 직접 붙이기를 하였고, 북한의 배돌석은 말총을 사용하여 콧수염만을 시술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35.북한의 배돌석



사진36.북한의 배돌석

사진35,36에서 보면 배돌석의 턱부분에서 수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비슷한 예를 보면 길막봉이도 콧수염과 턱수염의 양과 길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들로 보아 북한에서 수염분장에서 때로는 고증과 일반적 현상에서 수염 디자인의 개념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자의 외형적 조건에 맞추어 수염디자인과 분장 디자인 등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한의 영상물에서는 거의가 턱수염과 콧수염의 양과 길이의 차이를 심하게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 현상 이다.

8) 그 외에 남북한의 등장 인물들 중 서로 공통적으로 나오지않는 인물들과, 수염이 있는 초상화등에대해서 간략히 살펴 본다.

이장곤; 양반에서 백정의 사위 다시 양반으로 돌아간 인물.



사진37. 남한의이장곤 (김병세)



사진38. 백정사위가 된 이장곤



사진39. 복직이된 이장곤



사진40. 병관에 오른후의 이장곤

이장곤은 ‘벼슬을 지내나 항상 말타기 활쏘기를 좋아하며 신장이 늙음하고 여력이 절등하여 재목이 虎班에도 적당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sup>25</sup> 이장곤은 남한의 임꺽정에서는 중요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으나 북한의 임꺽정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신분의 변화를 여러 차례 격는다.

---

<sup>25</sup> 홍명희, 앞의책,권1.p7.

사진 37에서는 연산에게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간 하여 귀양을 가기 전의 모습이며, 사진38은 귀양지에서 북방으로 탈출 하여 백정의 사위가 된 모습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백정사위의 위치이기에 망건을 하지 않았다. 사진40은 병판 금부당상에 오른 후의 모습 이다.

양주팔: 백정학자에서 갓바치, 병해대사로 변모된 사람.



사진41. 남한의 양주팔(이정길)



사진42. 백정 학자인 양주팔



사진43. 묘향산 보현사의 양주팔



44사진. 혜화문 갓바치 양주팔

양주팔은 봉단,임돌과 함께 서울에서 머물다, 공부를 위해 묘향산에 가

서 정희량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어 도를 닦는다. 그 후 혜화문에서 갓바치를 하며 임꺽정과 박유복 이봉학을 제자로 가르친다.

후에 묘향산 보현사에서 중(병해대사)이 된다. 그는 85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친다.



사진45. 양주팔과 임꺽정



사진46. 병해대사인 양주팔

사진41의 양주팔 백정학자의 별명으로 불릴 때의 모습 백정의 신분이라 민머리를 했다.

앞,옆판을 하나로 해서 시술하였고 민머리가발을 사용하였다 콧수염은 뜯은 수염이며, 턱수염은 인조사를 사용하여 직접 시술 하였다.

병해대사가 된 후에도 머리와 수염을 자르지않았다, 양주팔의 신비스러움 과 도를 깨친 도사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 인 것 같다,

위의 사진41~46까지 시간흐름의 분장변화가 보인다. 검고 짧은 수염에서 길이가 길어진 수염 또 흰색이 많이 섞여지는 수염에서 세월의 흐름 등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의 양주팔은 을묘왜란 후 임꺽정 배돌석 이봉학의 대사중에 스승 양주팔이란 표현으로 더 이상 묘사되지않는다.

임돌; 임격정의 아버지, 이장곤이 복직 된 후 사촌인 봉단이가 숙부인이 되어 서울로 올 때 양주팔과 함께 온다.



사진47. 남한의 임돌이(박인환)



사진48. 소백정의 임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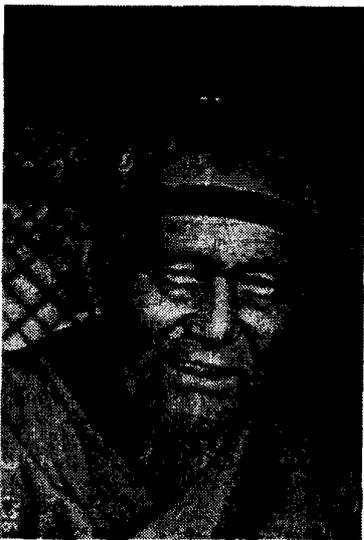


사진49. 노인이 된 임돌



사진50. 북한의 임돌

임돌의 머리분장에서 본 시간의 흐름, 신분에 의해 총각머리에서 민머리로 바뀌고, 민머리의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다.

앞,옆판은 하나로 제작되어 졌으며, 수염은 콧수염과 턱수염은 뜬 수염으로 붙이고 그 위에 인 조사를 사용하여 덧붙이고 구렛나루 부분에

서 턱수염과 모두 연결 하지 아니하고 특정부분만 강조하여 늙은 백정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사진49에서 이빨은Tooth enamel 을 사용하여 섞은 효과와 이빨이 빠진 효과를 내었다.

사진50은 북한 임돌의 모습이다. 연기자 의 얼굴이 워낙 말라있어 민머리와 수염 분장이외에는 본인의 얼굴이 더욱 병약해 보여 더 이상의 분장이 필요하지 않은 듯 보인다. 턱수염의 웨이브와 수염의 색이 너무 흰색이라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사진51. 남한의 오가(임현식)



사진52. 북한의오가(송만갑)

사진51,52는 박유복의 의 붓 장인, 탑 고개의 도적 오가 이다.

남·북 모두 해학적인 분위기로 등장한다. 분장의 설정도 해학 요소가 가미 되어 진 듯하다. 남한의 오가는 인 중 부분의 수염양이 급격히 감소 되어 입 부분이 더욱 튀어 나와보인다. 북한의 오가는 다른 등장 인물에 비해 수염분장이 소홀해 보인다 본인의 수염이 아니며 세심하게 분장 되 보이지도 아니 한다.



사진53 북한의 양반 노인



사진54북한의 양반 노인



사진55 북한의 백이방



사진56 앞,옆판을 붙인 이방

사진53의 북한 양반의 수염은 본인의 수염 처럼 보인다.

남한의 분장에 익숙한 시청자 관객 등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래사진 57의 초상화를 보면 북한의 양반 수염과 비슷함을 느낄 수 있다.

사진55,56은 북한의 백이방 황천왕동의 장인이다. 수염의 형태도 가벼우며 앞,옆 판이 시술 되어 졌음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사진57. 박해창상



사진58. 거제의 노인

사진58은 이장꾼이 연산에게 덕을 고한 후 거제로 귀양 갔을 때 마을에서 이장꾼이 북방으로 탈출 할 수 있게 도와준 노인이다. 지방의 바닷가에서 사는 노인의 이미지 수염의 형태로 보아서 건강해보인다. 수염의 모양이나 피부색에서 등장인물의 건강에 대하여 볼 수 있는 좋은 예의 사진이다.



사진59. 남한의 남자 등장인물



사진60 북한 양주의 마을 사람들

여자들의 분장비교는 사극머리에 치중이 되므로 간단히 얼굴의 피부톤에 대해서만 논하려 한다.



사진61. 남한의 애기



사진62.남한의 애기



사진63. 북한의 운봉



사진64. 북한의 섭섭이

사진61, 시집 가기 전의 애기의 모습이다. 애기는 임꺽정의 어머니이다. 사극이라 여자들 얼굴색도 현대물에 비해 어둡게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물에서 남자의 기본 색을 중심으로 연기자의 피부색보다 어둡게 한다. 사진62는 결혼하고 난 후의 애기 모습이다.

사진63은 북한의 운봉 임꺽정의 아내이다. 사진64는 북한의 임꺽정 누나 섭섭이 이다. 북한의 여자 연기자의 얼굴색은 남자색보다는 밝다,

그러나 현대물의 얼굴색보다는 어두운 편이다.



사진65. 북한의 백귀련



사진66. 북한의 박유복처

사진65는 백 이방, 황천왕동의 처이다 . 결혼식이 끝나고 난후의 모습이다. 사진66은 최영장군의 혼령에게 시집 가기 위해 최영장군 사당에 재물로 바쳐진 여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박유복과 사당에서 만나 박유복의 처가 된다.

사진65,66모두 혼례복장과 분장을 하고 있다. 얼굴의 톤은 북한의 애기나 섭섭이와 별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두 사진 모두 특징적으로 눈의 웨도우 눈썹 등이 인위적으로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북한의 분장 방법이라 생각된다 한다.

## IV. 결 론

본 논문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우선, 남·북한 영상물 중 방송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한은 방송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거의 완전하게 가까운 자유를 보장하며 방송법상에 방송의 자유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내용과 형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오히려 방송 프로그램이 획일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각 방송사는 보도, 교양, 오락물을 일정부분 이상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방송은 내용과 형식은 이미 당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제작하는 형태를 보이며 김일성 부자의 위대성 선전이나 당 정책 의도에 잘 부합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 당에 의해 종속되고 당의 유일 관리제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남·북한의 임격정은 해석 차이가 달리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임격정은 벽초 홍명희의 역사소설을 역사 드라마화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교육과 오락물로 즐기며 자연스럽게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작을 한 반면, 북한에서는 당의 사상사업의 하나로 간주하여 대중을 보다 많은 노력착취로 내모는 당적원칙에 입각하여 억압이 있는 곳에 반드시 반항이 있기 마련이며 어떤 운동도 인민들과의 연계아래 진행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이 되었다.

북한의 임격정은 당의 당적원칙에 따라 각색을 하여 양반들의 이야

기와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에 대해서는 제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남·북한의 임꺽정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을 설정하는데 있어 북한의 첫번째 작품인 의형제 편까지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남·북한 임꺽정 분장비교(남한의 공중파에서 방송하였던 임꺽정)는 영상물들을 사진화하여 남한과 북한의 임꺽정 분장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연구를 하였다.

남한의 임꺽정 분장에서는 사실적인 분장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통한 시각적인 거부감에 의해 미학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분장하였으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나누어 지는 계급에 대해 모두가 평등함을 원칙으로 하여 극중 캐릭터에 충실하게 분장하였다.

북한의 임꺽정 분장에서는 김정일의 분장에 대한 교시에 따라 사실적으로 분장이 이루어지며 사상적 내용에 맞추어 극중 인물들의 사회적 신분에 의해 나누는 계급에 대해 외형적 표현방식이나 사고의 차이가 다르게 표현되며 특히 부르조아계급(양반, 부가 축적된 상인)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천민)의 외형적 이미지를 사회주의 시각에 맞추어 표현하였을 것이다. 양반은 평민 이하의 계급(노동자)을 착취 하는 비 인간적인 이며 야비한 인간으로 묘사되어진다. 그래서 분장의 디자인도 외형적으로 보면 학자다운 모습이나, 후덕한 이미지의 표현보다는 간사하고 간교해 보이게 디자인되어 보인다. 북한의 의형제편중 황천왕동이 백 이방의 딸 귀련과 혼례 때 양반으로 변복한 임꺽정에게 아부하는 양반의 모습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북한의 극중 양반의 모

습을 대사와 분장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다.

이렇듯 남·북의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발생하는 문화, 환경 차이가 분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이 포함될 수 없는 기술부분의 교류로부터 시작을 하여 남과 북의 사상과 이념이 동질성을 회복해가며 서서히 교류를 시도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미학적 차원의 분장과 사실주의에 입각한 분장이 함께 하며, 남한의 이상적인 분장과 북한의 이상적인 분장에 대한 교류도 가능하여 지며 더욱 다양한 분장 결과물 창출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남한에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여 북한 자료의 한계가 존재함을 밝힌다.

##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1999.
-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73.
- 김문환 책임편집, “북한의 예술”, 을유문화사, 1992.
- 김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87.
- 노재승, “북한영화계 : 1977-1988”, 영화진흥공사, (격월간 영화 제125호  
(’89년 7월호) 별책부록)
- 문화체육부 역음, “김정일 문예관 연구 (문헌자료집)”, 서울: 문화체육부,  
1996.
-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
- 백지한, “북한영화의 이해”, 서울: 친구, 1989.
- 윤재근 외, “북한의 문화정보 1”, 서울: 고려원, 1991.
-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 사상.체제.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최적호, 노재승, “북한영화계”, “한국영화연감” (각연도별 판), 영화진흥공사.
- 최적호, “북한예술영화”, 서울: 신원문화사, 1989.
- 통일원 정보분석실, “북한영화의 이해”, 서울: 통일원, 1996.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북한의 영화산업 현황과 영화 진흥정책연구”, 1997, 9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북한문화예술 교육현황 및 발전방안연구”, 2001. 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북한의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방향”,  
1993.9.

황호근, “한국장신구미술연구”, 서울: 일지사, 1976.

홍명희, “임격정, 전9권”, 서울: 사계절출판사, 1985.

국립현대미술관, “석지 채용신”, 서울: 삶과꿈, 2001.6.

## [논 문]

구환근, “남북한 방송교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6.

김용문, “우리 나라의 수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김종찬, “디지털 방송시대의 일본 민방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봉천, “한국TV드라마의 성격분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현식, “군중노선에 있어 북한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광주, “통일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3.

- 박진영, “조선시대 복식유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1.
- 소영숙, “조선조 여성 수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신동국, “남북 방송교류 협력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1.
- 이순자,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형태 및 장식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 이창구, “洪命憲<林巨正>인물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성채, “북한의 방송정책과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정현숙, “텔레비전 드라마의 의미화 과정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0.
- 표재순, “텔레비전 드라마 편성의 시대적 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한진만, “한국 텔레비전 내용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기 타]

문화방송, 문화방송30년사, 문화방송, 1992

SBS, SBS 창사5년, SBS서울방송, 1996

한국방송개발원, 방송환경 변화와 TV드라마의 대응, 1994

한국방송공사 편, 한국방송60년사, 1996

두산 동아 출판사, 두산 세계백과

### [시청각 자료]

북한, 조선예술 영화 촬영소, 왕재산 창작단의 임격정, 의형제편, 1986

남한, SBS서울방송, 임격정, 1996

### [북한문헌]

“조선영화년감”, (1985~1992년도 판),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연간)

“조선영화”, (1993년 1월 이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월간)

리현순 “사회주의영화예술건설”,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7. 1998

### [인터뷰 자료]

정완식, 분장사, SBS 분장실(임격정)

# ABSTRACT

The comparison of Make-up of Lim, KKeog Jeong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Lee, Jong Seo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Fashion Arts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an sung University

While mutual different systems continued for 50 years or so, of division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pposition and heterogeneity have been deepened in each field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tc.

So as to achieve the race reunification, which is the inevitable subject of our race in this actuality, it should precede to minimize the side effect to be based on unification by overcoming the heterogeneity accumulated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restoring the homogeneity of race above all.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made Lim, Kkeog Jeong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was broadcasted in the airwave of South Korea out of the image material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referred to nove. Lim, KKeog Jeong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the image material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made [Bongdan Piece], [Retreat Piece], [Yangban Piece], and [Sworn Brothers Piece] of image materials by Lim, Kkeong Jeong of the extent of this thesis.

Because Lim, KKeong Jeong of South Korea was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ion order of original novel but Lim, KKeong Jeong of North Korea was manufactured from [Sworn Brothers] Piece.

First,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concept difference about the image material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tudied the inner and outer sides of characters through novel, Lim, KKeong Jeong, and studied make-up design and make-up technique etc. around the situation to be placed by the character, social position and environment etc. to be shown visually about the characters in image materials.

As for the definition for the make-up of South Korea, it is the outer visual expression means to express actors suitably for period, age, and situation so as to make them of the characters that playbook demands.

As for the definition about make-up in North Korea, it is being specified that it is the art of character creation to give life to the form of character that actors create plastically. By the instruction of Kim, Jeong IL.

As the result that this researcher compared and studied the external image, make-up design and make-up technique etc. about the characters of Lim, Kkeog Jeong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n the basis of above study contents, this researcher tried direct attaching by using artificial yarn etc. in rough make-up and used the make-up materials of foreign country diversely in equipment make-up etc. so as to express the aesthetic side and the cast in play by being faithful to the general concept of makeup in Lim, KKeong Jeong of South Korea.

But, this researcher came to discover that diverse expression methods and various kinds of materials are not the best method for giving life to the case in play but the life of case and the situation to be placed etc. are more important things.

In Lim, Kkeong Jeong of North Korea, actors were made of character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 of Kim, Jeong Il about makeup, external expression method or thinking difference are expressed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position of characters, and the parts to see with prejudice are seen visually in the make-up of characters about the nobility and the commoners to have much fortune.

On the contrary, about the general commoners and the classes below commoners, realistically forms to be ruled by the governing class are shown intensively.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hought and idea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is researchers analyzed the external features of the case in play, which are revealed visually by the classification of social stratum.

So as to minimize the points at issued which will be caused at the time of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will have to be decided to provide for future by doing the joint study about the technique related to the image materials such as photography, illumination and make-up etc. which are not idea field or exchanging technique mutually.